

지해 깊어지는 건강 >>> 지도 밖에서 만나는 건강
글 이윤미 사진 원도군정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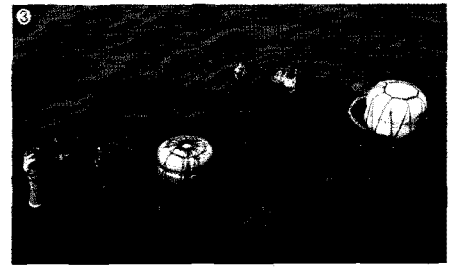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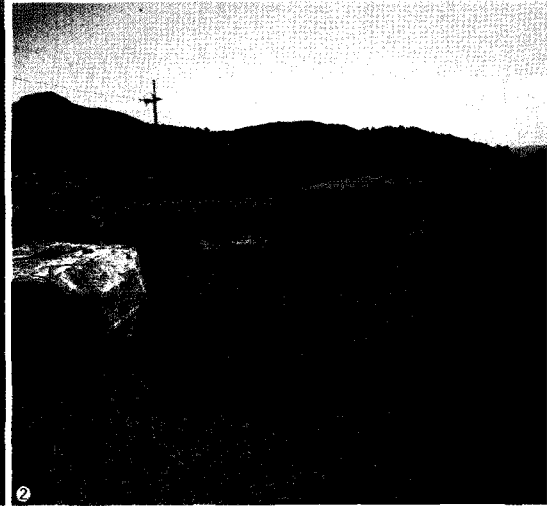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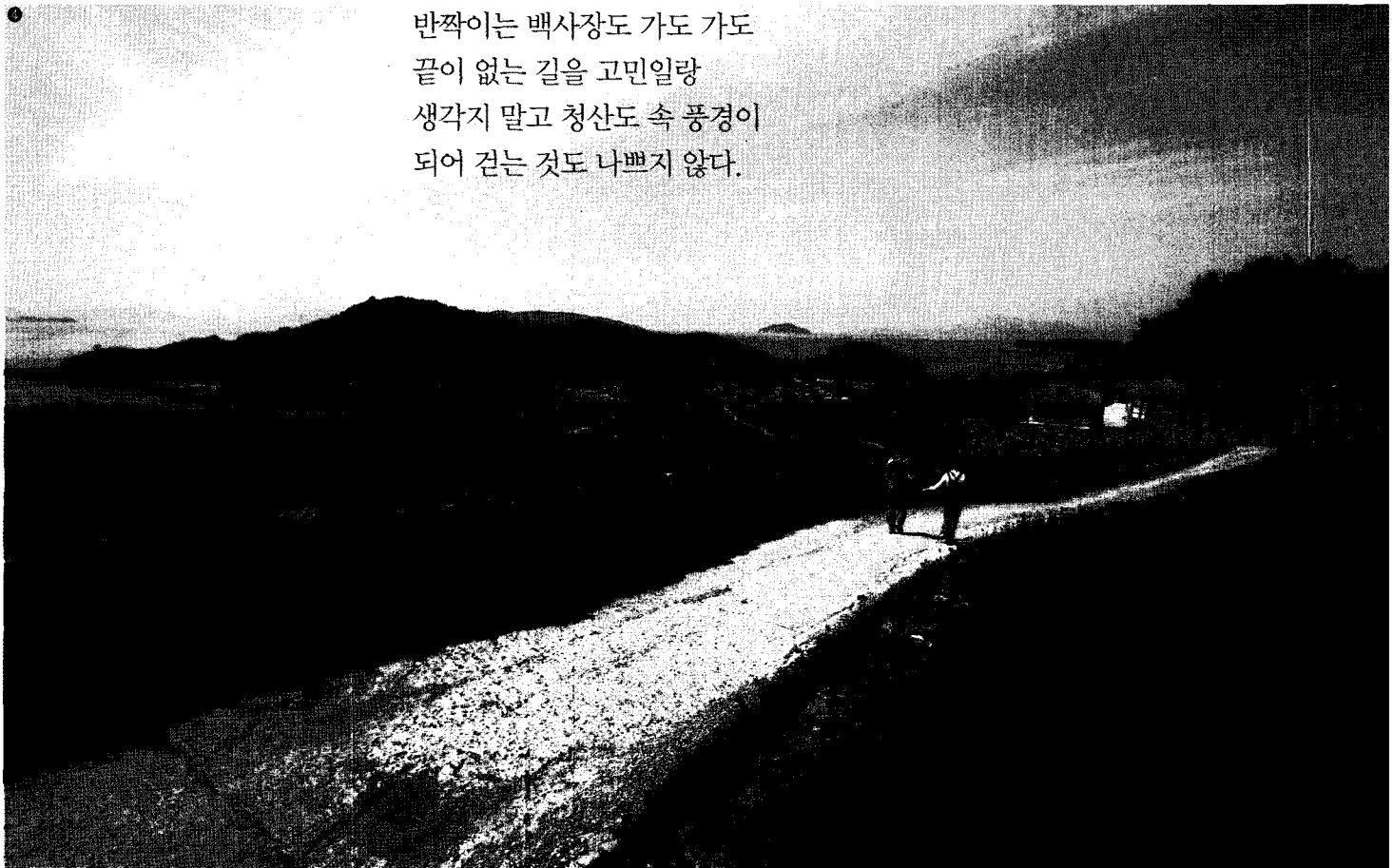
초록빛 바다의 가르침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청산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를 떼어놓고 청산도를 말할 수 있을까. 1993년 개봉한 영화는 남도 저 밑에 자리한 섬 청산도를 세상에 알렸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봄의 왈츠'도 청산도의 푸른빛 바다와 초록빛을 담아내 많은 발걸음이 청산도를 찾았고 지금은 세계인이 인정한 슬로우시티로 청산도가 섬 중의 스타로 났다. 그 푸른 바다로 가보자.



하늘도, 바다도, 산도 푸르른
 이곳 청산도에 도착했다면
 빨리 걷는 법은 잊고 천천히
 걷길 바란다. 구불구불한 옛
 돌담길도 은빛 모래가
 반짝이는 백사장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고민일랑
 생각지 말고 청산도 속 풍경이
 되어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



18년을 느리게, 그곳을 지켜줘 “고맙습니다”

청산도는 완도에서 약 19km 떨어진 작은 섬으로 남해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다도해의 으뜸으로 손꼽힌다. 하늘, 산, 바다가 모두 푸르다고 해서 이름도 ‘청산도’라 불리게 되었다.

이 푸르른 청산도를 찾는 발걸음이야 각자겠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화 ‘서편제’를 기억하고 영화 속 한 장면을 가슴에 담고 청산도를 찾는다. 이렇게 청산도를 찾은 이들이 청산도에 와서 첫 번째 건네는 말은 “청산도 주민에게 고맙다.”다.

영화는 돌담길 구불구불 이어진 황톳길을 걸어 내려오는 세 사람을 그려냈다. 소리꾼 아버지(김명곤 분)와 의붓딸 송화(오정혜 분), 복을 멘 아들 동호(김규철 분)다. 송화가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내려오던 길, 복채를 두드리던 동호. 영화 속 그 장면이 18년을 훌쩍 넘은 지금까지는 청산도 한복판에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다. 영화 속 돌담길도 그대로다. 한국영화 역사상 명장면으로 꼽히는 이 장면을 2011년에도 그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일지 모른다. 그 길 옆에는 송화가 득음을 위해 피눈물 나게 소리공부를 하던 초가가 복원돼 있다.

청산도 주민들이 급속한 세상 변화에 순응했다면 영화 속 풍경이 현재까지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산도 주민들의 이 느낌의 미로 청산도는 ‘슬로우시티’ 인증을 받아냈다. ‘슬로우시티’란 ‘자연 속에서 느리게 살자’라는 취지로 1999년 이탈리아의 소도시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슬로우시티라는 단어도 이탈리아어 ‘치타슬로(cittaslow)’를 영어식으로 바꾼 것. 치타슬로란 말 그대로 천천히 살면서 자연과

문화, 사람과 생물의 특색을 지키며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슬로우길

청산도에서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자 사람들은 멀리서도 청산도를 찾는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완도에 가려면 하루를 잡아야 할 만큼 물리적인 거리가 먼 곳이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4시간이면 완도에 갈 수 있고, 항구에서 쾌속선을 타면 45분이면 청산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는 섬인데 바쁠 것 없다.

하늘도, 바다도, 산도 푸르른 이곳 청산도에 도착했다면 빨리 걷는 법은 잊고 천천히 걸길 바란다. 구불구불한 옛 돌담길도 은빛 모래가 반짝이는 백사장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고민일랑 생각지 말고 청산도 속 풍경이 되어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옛날 흥얼거렸을 동요 가사처럼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어여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바닷물에 두 손을 담가 보면 청산도의 푸른 바다가 손에 물드는 것도 느낄 수 있다.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청산도 슬로우길’은 총 42km 길이다. 1코스 미항길, 2코스 사랑길 등 열한 개의 코스로 만들어졌다. 코스는 나뉘어 있지만 크게 보면 해안도로를 따라 한 바퀴 크게 도는 것이다. 코스가 끝나는 지점에 코스 안내판과 도장이 있다. 코스마다 도장 모양이 달라 이 길을 걸었다는 나름의 증명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코스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우체통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우체통 없는 곳 어디 있겠나만, 청산도 우체통은 1년 뒤 배달되는 ‘느린 우체통’이다. ‘느린 우체통’이라니 진정 ‘느리게 사는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을을 지나서 다시 바다로 가는 길에는 전설 같은 느티나무가 지키고 서 있다. 200년 된 보호수라 한다. 묵직한 20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듯하다.

슬로우길의 하이라이트는 5코스 범바위 길에서 만날 수 있다. 해안 절벽 꼭대기를 향해 걷는 길은 특이하게 솟았다. 해안 절벽을 따라 길이 이어져 있어 경치를 보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른다. 오르막이 끝나는 자리에 난간 전망대가 있다.

1. 청산도에서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자 사람들은 멀리서도 청산도를 찾는다.
2. 문화와 세월을 만날 수 있는 청산도
3. 푸른빛 바다에서 삶을 살아가는 청산도 주민
4. 돌담길 구불구불 이어진 황톳길을 걸어 내려오는 코스



바닷가 기암절벽의 굽이굽이 흘러가는 멧스런 선을 눈으로 놓치지 않고 살피느라 발을 떼기가 어렵다.

특별한 고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11개 코스를 다 돌 필요는 없다. 욕심 없이 천천히 걷자. 천천히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찾은 청산도가 아니던가. 코스 중간마다 서편제 촬영 장소, 범바위, 구들장 눈, 돌담 등 청산도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끼어 있어 걷다가, 쉬다가, 구경할 수 있다.

은백색 백사장을 지나칠 수 없다

바닷물이 빠지면 바지락과 백합 등을 캘 수 있다. 여름휴가를 맞이해 청산도를 찾은 것이라면 해수욕이 빠질 수 없다. 청산도 동쪽 끝 신흥해수욕장을 추천한다. 남도의 해안가 같지 않을 만큼 백사장이 고운 해수욕장이다. 편의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물이 깨끗하고 조용한 것이 특징이다. 밀물이 들면 은빛 모래밭이 조금밖에 드러나지 않지만 썰물 때에는 거닐기에 딱 알맞다. 신흥해수욕장을 찾았다면 해돋이를 놓쳐서도 안 되겠다. 주변 바다는 낚시터로 입질도 좋다.

넓게 펼쳐진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고기도 잡고 조개도 주울 수 있으니 여름 휴가지로 청산도만 한 해수욕장도 없을 것이다. 물이 깊지 않아 어린아이도 부담 없이 해수욕을 즐길 수 있으니 올해 여름 청산도로 떠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리라. **MEDI**check

초록빛 청산도로 떠나볼까



서울에서 완도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가 걸린다. 광주에서는 2시간 40분 정도가 걸린다. 완도에 도착했다면 완도터미널에서 1.5km 떨어진 연안여객터미널로 가야 한다. 연안여객터미널에서는 8:00, 11:20, 14:30, 18:00 하루에 4회 배가 운행한다. (반대로 청산도에서 완도행은 6:50, 9:50, 13:00, 17:00) 운임은 7,150원이며 운전자를 포함한 승용차는 2만 6,500원이다. 완도에서 청산도까지 45분 정도 걸린다.